

현대삼호중, 싱가포르 컨테이너크레인 4기 수주

‘투아스 신항만’ 설치 초대형 컨테이너선...2022년 인도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이상균)이 싱가포르가 의욕차게 추진하고 있는 ‘투아스 신항만’에 설치할 초대형 컨테이너크레인의 첫 입찰을 따내면서 향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싱가포르 PSA사와 초대형 컨테이너크레인 4기의 계약을 확정했다. 이번 공사는 현대삼호중공업이 설계와 구매, 제작, 설치, 운송, 현장 시운전 등 모든 공사를 일괄 맡아 진행하는 단키방식으로 2022년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는 향후 같은 사양의 컨테이너크레인 4기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

싱가포르 투아스 신항에 설치될 예정인 이들 컨테이너크레인은 최근 운용이 늘어나고 있는 1만8000TEU 이상 초대형컨테이너선의 물량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원격조정을 통한 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첨단 제품으로 각종 센서와 카메라 등을 통한 첨단 기술로 운영된다. 크레인에는 컨테이너를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는 트롤리(Trolley) 2개가 설치된 점도 특징이다. 이는 항구에 접안하는 운송 선사의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항만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크레인 모습.

/영암=전봉헌 기자 jbh@

장흥군, 화장실 공사 비리 의혹 수사 의뢰

‘탐진강 명소화 사업’ 관련 전남도 감사결과 문제 지적 따라 담당 공무원 4명·시공 설계 업체 2곳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

장흥군이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탐진강 명소화사업’ 관련 공무원과 업체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조치를 벌이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탐진강 명소화사업’ 일환인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설치사업’이 설계, 계약,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전

남도 특별감사 조치에 따라 문화관광과 담당 3명과 계약담당 1명 등 4명의 관련 공무원들을 장흥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군은 이와 함께 설계도면과 실제 물품납품이 달라 물의를 일으킨 시공업체와 설계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장흥경찰은 지난해 장흥군이 물품

제장내에 설치한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4개)을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에 유착관계를 맺고 관련 공무원들 묵인하에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흥군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설치사업 부실은 장성군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과 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전남도가 특별감사에 들어가면서 드러났다. 총 4억5000만원이 집행됐던 무방류 시스템 화장실 설치사업은 설계시방서와 설계

도면에는 화장실 2개, 샤워실 2개로 돼 있으나 실제 물품납품은 8천여만원대에 달하는 화장실 4개로 둔갑된 과정에서 공무원과 설계업체, 시공업체간 유착관계 의혹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탐진강 관광명소화사업’은 장흥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아 총 80억원 들여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수영장, 바닥분수, 그늘막, 화장실, 샤워실, 음악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재 70% 공정율을 나타낸 가운데 음악분수를 제외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화장실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사랑 상품권’ 할인율 7%로 상향

영암군은 24일부터 영암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3%에서 7%로 상향해 판매한다. 올해 발행분은 1만원권 8만장, 3만원권 9만장으로 총 35억원의 규모로 특별할인 판매 1차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2차 기간은 추석 명절 전후에 예정됐다. 상품권은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포함 관내 회원농협 17개소에서 판매 중으로, 구입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730여개의 업

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및 읍소 출입문 등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암사랑상품권은 2009년에 첫 발행한 이후 2018년 말 기준 135억원이 누적 판매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사랑상품권 7% 특별할인판매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라며, 지역민과 유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 기자 moon@

‘정남진 장흥한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장흥군은 최근 정남진 장흥한우(사진)가 2019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한우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 이 설문에 참여해 최고의 브랜드를 직접 선정하는 상이다. 본 시상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경쟁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올해는 산업군 별로 지방자치단체 후보 브랜드 64개 분야, 453개 항목이 경합을 벌였다. 정남진 장흥한우가 속한 그룹에서는 모두 175개 후보 브랜드들이 27개의 조사항목을 놓고 경쟁했다. 특히 혁신적인 브랜드관리를 통한 한우 산업 발전기여도, 브랜드 신뢰도를 끌어올린 것이 대상 수상 성과로 이어졌다.



대표브랜드 대상 선정위원회는 오는 5월 한 달 동안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정남진 장흥한우 홍보에 나선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농업기술실용화재단-두보식품(주) 쌀귀리 안정적 생산 업무협약 체결

강진 쌀귀리와 가바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종자 공급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소득화 기반 확보를 위해 군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두보식품(주)가 손을 맞잡았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이승욱 강진군수와 박철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허태곤 두보식품 대표이사,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농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군은 고품질의 쌀귀리 및 가바벼 생산단지(800ha) 조성에 추진력을 얻고 지속적인 원료곡 생산을 통해 소득화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군에 쌀귀리 등 특수곡물의 종자 공급, 쌀귀리의 기능성 이용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고, 두보식품(주)은 강진산 쌀귀리·가바벼를 이용한 제

품개발 및 안정적인 원료곡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를 대비, 2010년 25ha 면적으로 시작된 강진 쌀귀리 재배는 현재 100여 농가 300ha까지 확대됐다. 이는 쌀귀리 단일품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다. 2006년에 품종 등록된 가바벼는 전국 최초로 계약재배를 시작해 현재는 100ha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특제 기능성 식량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종자 공급 및 유통·판매에 어려움 없이 재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쌀귀리와 가바벼와 같은 식량산업의 성공 없이는 군정의 성공도 없다”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강진 백운동 원림’ 명승 지정 기념식

오늘 백운동 원림서... ‘명승 방문의 달’ 행사도 추진

강진군은 23일 오전 11시 국가지정문화재 제115호 ‘강진 백운동 원림’의 명승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을 백운동 원림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백운동 원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그 가치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명승지정 기념식에서는 백운다회, 거문고 및 대금연주 등 축하공연과 무료 차시음회 등이 진행된다. 또 ‘제1회 강진 백운동 원림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해 전국 사진작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백운동 원림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명승 방문의 달’ 행사도 추진한다.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인 방문의 달 기간 동안 거문고 연주 등 국악공연,

차 시음회, 그림 그리기대회를 여는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명승의 숨은 가치를 발굴하고 그 아름다움을 담아낼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월출산의 숨겨진 보물인 백운동 원림을 많은 관광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 줄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월출산 옥판봉 남쪽에 위치한 ‘강진 백운동 원림’은 조선시대 이담로가 조영한 별서정원으로, 지난 3월 11일 명승 제115호로 지정됐다. 특히 원림의 뜰에는 시냇물을 끌어 마당을 돌아나가는 ‘유상곡수(流觴曲水)’ 유구가 남아 있고, 민가에서는 보기 드문 화계(花階·꽃계단)와 다산 정약용 등 방문객들이 남긴 글과 그림들이 다수 남아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